칼 럼

## 하느님이 보우하사 대한민국 만세

정 기 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국토가 강대국 틈에 끼어있어 주변 강대국의 수많은 침략을 받으면서도 믿음의 신인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궁지에서 빠져나와 나라를 지키고 존속하게 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민족으로서 지혜를 발굴해 세계 기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세계 제2차 전쟁이 끝나고 세계질서를 잡기 위해 유엔이 1945년 10월 24일에 창설했으며 유엔은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경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북한 공산당이 1950년 6월 25일에 불법 남침을 했을 때 유엔군 파견에 대한 결의를 유엔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이 의결하게 되었는데 상임이사국인 소련 대표가 늦게 참석하여 소련이 기권한 상태로 가결하여 유엔군이 파견하게 되었고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많은 희생을 하면서 공산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켜 주었다,

여기에서 소련 대표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유엔군이 파병되지 못했고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당 지배하에 들어갔을 것이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소련 대표가 지참하여 거부권 행사를 못 하게 한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고 윤보선 대통령 시절 날마다 데모만 하고 있을 때 박정희 장군의 군사 쿠데타가 성공하여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았으며 새마을 운동으로 경제를 부흥시켰다. 이것은 하느님이 보우하사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했으며 경제성장과 민주화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나 정치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군사 동맹 (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 것이며 한국은 미국의 도움 아래 꾸준히 경제가 성장한 것이다. 만약 한미 군사동맹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처럼 침략을 이겨내기 힘들었을 것이며 경제 성장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미군사 동맹은 한국이 전쟁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을 이길 승산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든든한 한미 군사동맹은 한국이 미국의 영토와 같은 구실을 하고 있어 감히 감정은 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란 말은 스물 한 번 했다. 자유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언론의 자유가 첫째가는 나라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말했다. 그러므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각종 세계 경기에서도 강대국을 제치고 한국이 앞장서고 있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며 금메달을 받으면 애국가가 울려 퍼진다. 하느님은 실패했을 때는 성공의 지혜를 주시고 성공했을 때는 겸손의 미덕을 보이도록 하신다.

부존자원이 없지만, 원자재를 수입해 생산한 수많은 공산품이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는것은  한국인이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성당과 교회가 많으며 여기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하느님의 도움을 갈구하고 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하고 있는 나라도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하며 하느님의 지혜에 따르는 선량하고 충직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때마다 대한민국 만세를 부른다. 세계 여러 나라는 애국가는 있어도 가사에 하느님이 들어 있은 애국가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함께 도와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하느님이 보우하사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며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문화 선진국이 되도록 하느님이 함께하며 우리 민족을 도와주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한글이 세계 제일의 우수한 글자로 인정받았는데 이것은 하느님이 함께 우리 민족을 도우신 결과다. 컴퓨터가 등장하고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한글의 우수성은 다시 입증되고 있다. 세종대왕 만세! 대한민국 우리 한글 만세다.

성당이나 교회에서는 찬송가를 부른다, 우리는 기념식을 할 때 애국가를 부르는데 주악에 맞추어 가사의 내용을 음미하며 4절까지 불러야 한다.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기 고

## 해마다 늘어나는 전세사기, 피할 수는 없을까?

송 정 하 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해마다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 사기의 범죄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등의 전세사기 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져가고 있다. 서민의 자산 중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전세금일 것으로 볼 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을 잃었다는 정신적 상실감과 육체적 고통이 엄청날 것이다.

전세사기 패턴 중 계약 당일 융자가 없는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안심을 시킨 다음 계약 후엔 노숙자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고 전세 만기일이 되면 바지사장만 남기고 원래 집주인은 보증금만 챙겨 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20~30대 사회초년생이 흔히 당하는 케이스이다. 이들은 주로 시세를 속여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익을 남기고 여러 채의 빌라를 갭투자방식으로 사들이며 피해자를 불려 나가는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전세가율)를 알기 어려운 빌라 전세사기가 유독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독립을 미루게 되는 경우, 당했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몰라 패닉 상태인 경우가 많다.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를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로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오직 전세보증금보험 뿐이기 때문에 먼저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허가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권고한다. 두 번째로 등본을 직접 떼어보고, 꼭 계약서상에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전 매매, 근저당권 설정 등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특약 문구 확인 후 가계약 진행하며, 이사 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전세보증보험 반환 거절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세사기를 100%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다고 보여지나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되도록 전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022. 7. 25.부터 2023. 1. 24.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하며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낮은지역을 위험지역으로 따로 분류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전세사기가 근절되었으면 한다.

기 고

##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유비무환'

김 옥 연 완도소방서장

11월이 오면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사자성어가 저절로 떠오른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없고 우환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자성어이다. 사람과 동물 모두 다가오는 동절기를 안전하고 편하게 보내기 위해 의식주를 단단히 준비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인명피해 점유율이 봄이 27.3%, 여름 21.5%, 가을14.5%, 겨울 36.7%로 겨울철이 월등히 높았다. 이 통계를 반영해 소방관들도 11월에 들어서면 '불조심 강조의 달'이라는 캠페인을 시작으로 도민들의 안전문화를 미리 조성한다.

이번 11월은 「제75회 불조심 강조의 달」로 주로 다음과 같은 홍보활동 등이 실시된다. ▲「2022년 소방안전공모전」 포스터 수상작품 관공서, 주요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게첨 ▲불조심 캠페인 송을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불조심 강조의 달」 현수막 및 배너 게시 ▲언론매체 및 SNS를 활용한 홍보 전개 ▲대국민 화재예방 소방안전교육 실시 ▲도민과 함께하는 「119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등 다가오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도민 중심으로 많은 행사들이 실시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방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도민 스스로가 겨울철 화재 발생을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민들의 유비무환을 위해 몇 가지 겨울철 안전수칙을 적어본다.

첫 번째는 안전인증(KC마크)이 된 난방기구를 구입한다. 두 번째는 난방기구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세 번째 문어발식 콘센트 연결을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전선 피복의 손상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콘센트의 먼지를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이 같은 안전수칙을 미리미리 실천하고 지킨다면 도민 여러분의 겨울철은 포근하고 안전한 계절로 다가올 것이다.  도민 여러분 모두 겨울철 화재를 미리 예방하여 근심없는 겨울을 나기 바란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